

전일동향

전일대비 3.50원 하락한 1,487.00원에 마감

15일 환율은 전 거래일 증가 대비 1,493.00(15:30 기준) 3.0원 하락한 1,490.00(06:00 기준)에 개장했다. 환율은 약달러 흐름과 외국인 주식 매수, SK 하이닉스 ADR 자금 환전 물량 유입으로 하락하며 전일대비 3.50원 하락한 1,487.00원에 증가(06:0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 장중 변동 폭은 9.5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 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15.75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490.00	1494.00	1484.50	1487.00	1488.80
	엔화	920.38	924.71	914.87	915.75	-
	유로화	1697.49	1712.95	1694.42	1703.43	-
* 시가/고가/저가/종가 : 달러는 익일 06:00 기준, 엔화 및 유로화는 15:30 기준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55	-3.01	-7.37	-14.64
	결제환율(수입)	-0.29	-1.95	-5.19	-11.24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금일 전망 달러 약세에...1,480원대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0.9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484.70, 15:30 기준) 대비 1.30 상승한 1,485.1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달러 약세 속 수출업체 네고 물량 경계에 하락 전망한다. 미국 6월 CPI(소비자물가지수)에 이어 PPI(생산자물가지수)도 전월대비 0.3% 하락하며 보합을 예상한 시장 예상치를 대폭 하회하면서, 미 연준 금리인상 경계감 약화가 글로벌 달러 약세를 이끌며 금일 달러/원 환율에 하락 압력 가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주요 수출업체 중심 달러 매도 물량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고, 역내 수급 풀림 완화로 외국인이 국내 증시로 복귀하며 순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금일 오전 예정된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역시 한-미 금리 역전 폭 축소 전망을 통해 원화 강세를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환율 낙폭이 확대됨에 따라 대기중이던 수입업체 결제 수요 등 저가 매수세가 하단을 지지할 전망이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480.00 ~ 1491.75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23031.47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30원 ↑
	■ 美 다우지수 : 52658.64, +150.37p(+0.29%)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217.29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3040 억원